

치과의사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조 한 주 교수 /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 말도 있듯이,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이다. 더군다나 백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래도록 '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과 근거리 작업의 증가로 현대인들에게서 예전에는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았던 다양한 안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상 미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근거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한 레이저 빛 등에 항상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안구건조증, 노안, 그리고 광손상의 가능성 등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안구건조증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우리 눈물막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많은 성분이 여러 층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안구건조증도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질환이 아니라, 눈꺼풀과 기름샘, 안구표면 염증, 중추신경계 등 여러가지 복합체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위험군인 치과의사들의 안구건조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노안에 대한 위험도 다른 직군보다 높은 편이므로, 노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대처 방법, 노안의 발생 기전과 최신 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 외에도 평소 눈 관리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기타 여러가지 눈 건강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
- *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진료부원장
- * 한국망막학회 홍보이사